

발행처 천주교 서울대교구 | 발행인 염수정 |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입당송 | 지혜 1,7 참조

주님의 영은 온 세상을 채우시고 만물을 살리시며 온갖 말을 다 아시네. 알렐루야.

제1독서 | 사도 2,1-11

화답송 | 시편 104(103), 1ㄱ과 24ㄱ, 29ㄴ-30, 31과 34(◎ 30 참조)

◎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또는 ◎ 알렐루야.)

○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 하느님, 당신은 참으로 위대하시웁니다. 주님, 당신 업적 얼마나 많으십니까! 온 세상은 당신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하옵니다. ◎

○ 당신이 그들의 숨을 거두시면, 죽어서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당신이 숨을 보내시면 그들은 창조되고, 온 누리의 얼굴이 새로워지나이다. ◎

○ 주님의 영광은 영원하리라. 주님은 당신이 이루신 일을 기뻐하시리라. 내 노래 그분 마음에 들었으면! 나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리라. ◎

제2독서 | 1코린 12,3ㄷ-7,12-13 <또는 갈라 5,16ㄴ-25>

부속가 | <성령 송가>

오소서 성령님. 주님의빛 그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이 아버지, 오소서 은총주님, 오소서 마음의빛.
가장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손님 저희생기 돋우소서.
일할때에 휴식을 무더위에 시원함을 슬플때에 위로를.
영원하신 행복의빛 저희마음 깊은곳을 가득하게 채우소서.
주님도움 없으시면 저희삶의 그모든것 해로운것 뿐이리라.
허물들은 씻어주고 메마른땅 물주시고 병든것을 고치소서.
굳은마음 풀어주고 차디찬맘 데우시고 빛나간길 바로소서.
성령님을 굳게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성령칠은 베푸소서.
덕행공로 쌓게하고 구원의문 활짝열어 영원복락 주옵소서.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오소서, 성령님. 믿는 이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그들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

복음 | 요한 20,19-23 <또는 요한 15,26-27; 16,12-15>

영성체송 | 사도 2,4,11 참조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하느님의 위업을 선포하였네. 알렐루야.



이광휘 베드로 신부 | 사회사목국 이주사목위원회 위원장

성령께서 이끄시고 함께 하시니

이주사목위원회 직원들은 매일 아침 함께 모여 그날의 복음을 읽고 '이주민을 위한 기도'를 바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는 하루를 이주민을 향한 진정한 사랑 안에서 그들을 위해 성실하게 봉사하며 보낼 수 있도록 청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만이 우리 복음 선포의 사명을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저희는 주님의 작은 도구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성령께 우리 일의 주도권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락방에서 문을 닫아걸고 두려워 떨던 사도들에게 보호자 성령께서 불꽃 모양의 혀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성령 강림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주님의 영을 불어 넣어 주시며 그들을 세상으로 파견하십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마르 16,15)

예수님 공생활의 시작을 떠올려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회당으로 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루카 4,18-19) 예수님의 복음 선포 여정 중 성령께서는 시작부터 그 이후의 모든 활동의 한 가운데에서 항상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끌어 주시는 성령과 함께 하시며 당신의 사명인 가난한 이들을

을 위한 봉사와 희생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완성하십니다.

성령 강림은 파견과 맞닿아 있습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요한 20,21) 그런데 주님께서서는 이 파견의 말씀과 함께 보호자 성령을 내려 주십니다. "성령을 받아라."(요한 20,22) 제자들은 성령으로 가득 차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되어,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전진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사도 2,38) "그분 말고는 다른 누구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사도 4,12) "우리로서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사도 4,20) 성령의 이끄심과 함께이기에 어떠한 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 지상의 교회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는 사제, 수도자 그리고 평신도들을 뽑으시어 세상 끝까지 파견하시며 하느님 백성인 교회를 이끌고 계십니다. 이러한 부르심에 그들은 "오 예수님, 제가 여기 있으니, 당신 뜻을 이루십시오.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라며 순명으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서는 당신께서 받으셨던 그 성령과 함께 우리를 당신 사랑의 사도로서 각자의 삶의 자리로 파견하십니다. 그 파견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사랑을 실천하여 복음의 증거자가 되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시고 함께 하시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여의도 불꽃축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요한 20,22)

성령이 불꽃처럼 내려와 마음이 뜨거워지길 소망해 봅니다. 어둠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어려움을 헤치고 나아갈 힘과 지혜를 주시길 보호자 성령님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빛으로 날로 새로워지고 영혼과 육신의 건강함으로 사랑 충만한 성령의 열매를 함께 나누길 희망합니다.



이영혜 아비도 | 가톨릭사진가회



말씀의
이삭

주님과 아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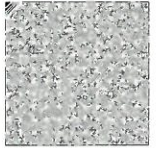
이젠 제 아들이 훌쩍 커버려서 저보다 어깨도 넓고, 키도 더 큼니다. 든든하면서도 약간은 대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저는 성당 친구들도 많고 사회생활 중 만나는 사람도 많지만, 요사이엔 아들들하고 술 한잔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큼니다. 아들들 사는 이야기도 듣고 싶고, 이것저것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들, 한잔할까?” 하면, “다음에 하시죠.”라는 답이 옵니다. 훌쩍 커버린 아들에게 서운하면서도 머쓱해진 마음으로 ‘다음에 하지, 뭐.’ 하고 스스로를 다독이는데, 갑자기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애주가이기는 하셨지만, 너무도 엄하게 느껴지던 분이시라, 술자리를 감히 부탁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함께 여행 한번 가지자고 말씀드려 본 적도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런 말씀을 드려 본 적이 없구나...’ 저에게는 너무 엄한 분이시라, 무서워서 말씀드리질 못한 것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아버지께서 혹시 그 말을 기다리셨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마음속으로는 ‘언제든지 좋으니, 한잔하자.’며 기다리셨을 것도 같습니다. 말은 일들로 정신없는 시간 속에서도 이들의 “아빠 한잔하실까요?” 하는 말이 듣고 싶은 아비가 되고 나서야, 아버지의 마음이 헤아려집니다. 제 아버지께서도 제가 “한잔하시죠.”라고 말해주길 기다리지 않으셨을까, 얼마나 기다리셨을까 싶은 생각에 눈물이 핑 돌습니다.

제가 성당에 나가겠다고 말씀드렸을 때 아버지께서는 펄쩍 뛰셨습니다. 집안 제례를 망친다고 하시며 장손은 아무 종교도 갖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죠. 그러던 아버지께서 당뇨에 시달리시며 하루하루를 견디시다가 마지막엔 “그래도 성당은 다른 종교랑 다르지.” 하시며 대세를 받으셨



유용 베네딕도 | 서울시의원



습니다. 병환이 깊어져 아무것도 기억을 못 하게 되셨을 때도 “내 세례명은 요셉이야.” 하시던 아버지가 기억납니다. 제게 “네가 일을 직접 하면 한 몫이요, 일을 잘 배분해서 시키면 열 몫도, 백 몫도 할 수 있다. 평소에 누가 그 일에 적합하고 잘하는지 잘 알고 있어야 일을 맡길 수 있다.”고 가르치시던 아버지께서는 10여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엄하게만 느껴지던 아버지인데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생각이 납니다. 아들과 나누는 술 한잔이 아쉬워서 ‘이놈들이 언젠가 시간 내겠지.’ 하며 기다리면서도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되니, 하느님 아버지께도 생각이 미칩니다. 사랑으로 저를 창조하신 하느님께서 위태위태하게 길을 가는 저를, 얼마나 걱정하시며 돌보셨을지를 말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시건방진 저를 다듬으시고, 간혹 제가 방황할 때면 집 떠난 저를 기다리고 계셨을 하느님을 생각합니다. 이제야 저를 향한 하느님 마음이 조금이나마 헤아려지며, 아버지이신 그분 사랑을 새삼 깨닫습니다.

를 이끄는
성경구절



이희은 엘리사벳
도봉동성당

12월 4/6

더 파더

기억하게 하소서!

2020년 감독: 플로리안 젤러

“그럼 나는 도대체 누구지?”

안소니는 이렇게 말하며 흐느낍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동안 수없이 쓰고 불렀던, 팔십 평생 삶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안소니’라는 이름조차 처음 들어봅니다. “이름 좋네.”

치매는 그의 현재와 과거의 시간들을 조금씩 앗아갑니다. 그에 따라 시간 위에 새겨진 기억들도 하나둘 잃어갑니다. 그 느낌을 안소니는 “내 앞서가다 다 지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작은 아기 앞서가 하나만 남아서 엄마를 찾습니다. “엄마가 보러오면 좋을 텐데, 엄마가 보고 싶어.”

기억은 한 인간의 실존이며, 역사입니다. 철학자 존 페리는 기억은 곧 영혼(불멸성)이고, ‘나’를 ‘나’이게 하는 것(동일성)이라고 했습니다. 치매는 그것을 허물어버립니다.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소중한 관계들을 지워버리고, 쌓아온 시간들을 증발시킵니다. 그 무참함에 저항이라도 하듯 안소니는 유난히 자신의 손목시계에 집착하지만, 그것으로 잃어버린 기억과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살아남는 ‘영생’이 아니라,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혼이 사라져가는 소멸.

그것이 얼마나 두렵고, 외롭고, 힘들고, 혼란스럽고, 슬픈지를 애잔하고, 날카롭고, 가슴 아프게 드러낸 영화 <더 파더>는 결코 별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85세가 넘으면 3명 중 1명, 65세만 넘어도 10명 중 1명은 안소니처럼 살고 있거나, 살아야 하는 고령화 사회에서 그는 지금의 ‘나’ 또는 ‘나의 아버지’, 멀지 않은 미래의 ‘나’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치매를 앓는 사람의 모습과 행동을.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 가족에게는 얼마나 큰 고통과 안타까움을 안겨주는지도.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정작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의 절망과 불안, 외로움과 슬픔을. 설령 자신이 당사자라고 해도 치매는 그것들을 ‘기억’하고 이야기해 줄 수 없게 만드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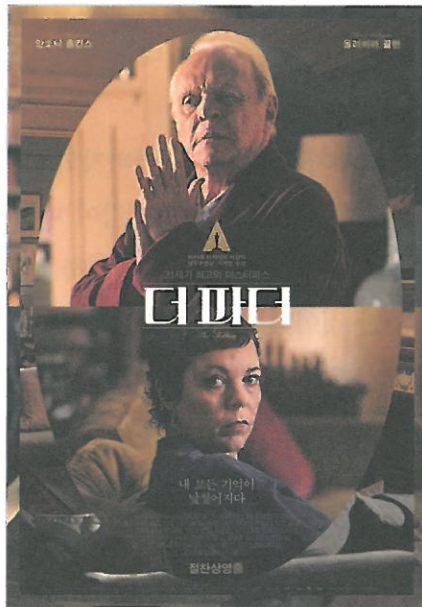
올해 아카데미영화제에서 사상 최고령(84세)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노배우 안소니 홉킨스는 스스로 그 주인공(치매 환

자)이 되어 그것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모든 것이 이상하고 혼란스럽습니다. 내 집에 낯선 남자가 주인처럼 행세합니다. 딸 앤(올리비아 콜먼 분)의 행동도 의심스럽습니다. 앤의 여동생 루시의 그림이 벽에 걸려있었는데 없어지고, 루시를 닮은 젊은 간병인 대신 다른 여자가 나타납니다. 가구가 자꾸 없어지는가 하면, 집안 모습도 바뀝니다.

그도 아주 잠깐씩 기억이 돌아오지만, 그것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시간이 늘어가면서 착각과 환상에 빠져들고 몇 주 전

부터 자신이 요양원에 와있다는 것도 모른 채, “내가 여기 왜 있지?”하고 딸을 찾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싫고 무서워 스스로 기억을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병원 복도 의자에 혼자 앉아 있는 안소니의 막막한 표정, 돌아오는 차 안에서의 텅 빈 눈, 아버지를 요양원에 맡기고 나오는 앤의 젖은 눈빛이 좀처럼 잊혀지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 살아있는 동안 제가 ‘저’를 기억하게 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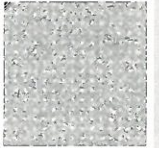
오늘(5월 23일)은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성령 강림 대축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축일로, 신약의 새로운 백성인 교회가 탄생한 날입니다.

주교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결과

- 1 주교회의 민족화해주교특별위원회 총무로 현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총무 강주석 베드로 신부(의정부교구, 2002년 사제 수품)를 임명. 이에 따라 강주석 신부는 주교회의 민족화해주교특별위원회 총무와 민족화해위원회 총무를 겸임.
- 2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의 운영 규정(개정)을 승인. 개정된 운영 규정에 따라, 연구소 담당 주교는 주교회의 서기(유홍식 주교)가 맡게 됨을 확인하고, 현 부소장 박용승 요셉 신부(부산교구, 1998년 사제 수품)를 연구소장으로 임명.
- 3 주교회의의 2020년 추계 정기총회에서 승인한 『한국 천주교 사제 양성 지침(개정안)의 사도좌 추인을 위하여 영역한 지침서 Ratio Nationalis: Program for Priestly Formation of the Catholic Church in Korea (revised draft)를 교황청 인류복음화성에 제출.
- 4 모든 교구가 코로나19 백신 나눔 운동에 함께하기로 한 주교회의의 2021년 춘계 정기총회의 결정에 따라, 각 교구의 모금액을 교황대사관을 통해 교황님께 전달하기로 함.
- 5 군사 쿠데타로 인한 유혈 사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얀마 교회를 위하여 한국 천주교회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한 주교회의의 2021년 춘계 정기총회 결정을 재확인하고, 구체적인 지원을 하기로 함.
- 6 가난한 이들과의 연대를 표현하고자 주교들이 매년 수입의 일부를 자율적으로 기부하여 조성된 '착한 사마리아인 기금'을 국내 난민 지

원 단체(대구 가톨릭 근로자 회관, 동두천 베타니아, 착한 사마리아인의 집) 지원과 교황청 로마한인신학원에 거주하는 아시아 사제의 장학금을 위하여 사용하기로 함.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79년 5월25일 박일규 안드레아 신부(82세)
- 1984년 5월27일 이선표 요셉 신부(37세)
- 1993년 5월29일 김창석 타데오 신부(67세)
- 2005년 5월27일 이봉우 토마스 데 아퀴노 신부(71세)
- 2020년 5월24일 최선웅 야고보 신부(77세)

교황님과 함께 하는 '백신 나눔 운동'

참여방법 1 본당 사무실에 성금 접수(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

참여방법 2 계좌입금: 우리은행 1005-398-100101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세액 공제 받으실 분의 성함으로 입금하시고, 기부 내역 누락 방지를 위해 무통장 입금 후 바로 연락 주십시오.
문의: 02)774-3488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 운동

① 밤 9시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모경을 바친 후 "평화의 모후,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평화의 모후, 세계 평화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를 바칩니다.

② '평화를 구하는 기도' 또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 함께 바칠 수도 있습니다.

교구청알림

캘러리1898 전시안내 / 문의: 02)727-2336
 조수선 개인전: 1전시실
 장천석 개인전: 2전시실
 전시일정: 5월19일(수)~31일(월)
 강정희 개인전: 3전시실
 전시일정: 5월26일(수)~31일(월)

'임 가신 길, 임 따라 걷는 길' 순례 신청 안내
 때: 6월1일(화) · 12일(토) · 15일(화) 오전 9시부터
 코스: 김대건 신부 치명 순교길(우포도청 터~절두산순교성지) 도보순례 / 문의: 02)2269-0413
 회비: 1인 7천원(간단한 간식 제공)
 신청: 5월24일(월) 오전 9시부터 순교자현양위원회 홈페이지(www.martyrs.or.kr) 선착순 접수
 방역지침 준수, 전화 및 문자 접수 받지 않습니다

서울대교구 법원 공시
 아래 공시되신 분은 6월7일(월)까지 교구 법원으로 연락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 문의: 02)727-2130, 2131(주말, 공휴일 휴무)
 성명: 이혜미 로사, 정경미 수산나, 홍영갑 스테파노

민족화해위원회
 1)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내 마음의 복된 본당 갖기) 미사
 때, 곳: 5월25일(화) 19시, 명동대성당(1271차)
 이번 주 기억할 본당: 서울대교구 신천 · 송화 본당
 때, 곳: 6월1일(화) 19시, 명동대성당(1272차)
 이번 주 기억할 본당: 서울대교구 재령 · 서흥 본당
 미사 후에는 한반도 평화와 북녘본당을 위한 묵주기도를 봉헌합니다 / 문의: 02)727-2420

2) 북한지역 교회자료 정리 봉사자 모집
 누구나 지원 가능, 역사 전공자 우대 / 문의: 02)753-0815

경찰사목위원회 선교사 양성교육(2021-2차 교육생 모집)
 대상: 경찰사목 선교사 활동에 관심 있는 견진 성사를 받은 교우 / 경찰사목 선교사 활동 및 교육과정은 홈페이지(www.catholicpolice.or.kr) 참조
 교육기간: 6월2일~10월20일 매주(수) / 20주 과정
 교육장소: 가톨릭회관(명동)
 신청기한: 5월28일(금)까지 / 회비: 10만원
 문의(접수): 02)742-9471, 3 경찰사목위원회 교육센터

영성심리상담교육원 2021년 영성심리아카데미 프로그램 안내
 대상: 만 20세 이상, 가톨릭 신자(단, 각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수강 대상이 따로 제시될 수 있음)
 때: 7월~12월 / 교육명: 영성심리특강, 기도동반, 영성심리집단상담, 의사소통훈련, 피정 등(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게시판 참고)
 신청: 홈페이지(http://seoulcpc.catholic.or.kr) 회원 전용 - 교육신청(온라인 화상 수업의 출결 확인을 위해 카메라 설치된 컴퓨터, 노트북, 휴대폰 등 사용 필수)
 문의: 02)727-2126(cpc@seoul.catholic.kr)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성모 승천 수도회	수시	본원(광주광역시)	010-3771-5098
성 베네딕도회 요셉 수도원	수시	본원	010-4241-1210
예수 고난회	6월5일(토) 18시~7일(월) 13시	수도원(돈암동)	010-6804-4904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봉쇄 수녀회	수시	수녀원(청주)	043)295-5940(cpnunkorea@catholic.or.kr)
프란치스코 전교봉사수녀회	5월30일(일)	본원(삼전교)	010-3679-7198 강피아 수녀
한국외방선교회	6월6일(일) 11시	본부(성북동)	010-8715-2846 성소국장 신부

인준단체 알림

모임

비대면 생활 피정 / 문의: 010-3173-2665
접수: 다음카페 '돌개생활피정' / 최영민(예수회)

토아올림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때, 곳: 매주(화) 12시30분~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중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작은예수수녀회 매일 철야기도 지향
대상: 중재기도(특별기도) 필요하신 분
때: 6월1일~30일 / 문의: 010-8874-7970

하느님 자비를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팔로티회)
때: 5월25일(화) 13시30분(강의)~14시50분(미사)
곳: 프란치스코 교육회관(경동) 6층 / 문의: 031)707-4450

노들담 교육관 묵상 피정
곳: 종로구 노들담 교육관 피정센터
때: 2박3일 5월25일~27일, 1박2일 6월8일~9일·6월11일~12일·6월15일~16일 / 문의(접수): 010-4440-0731

호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때: 5월28일~31일·6월11일~14일·6월25일~28일·7월23일~26일·7월30일~8월2일
곳: 성 도미니코 수도원(주최, 수용등)
회비: 36만원(호소비 포함) / 010-9916-5798 노경덕 신부

베네딕도회 성경통독 8일 단식 피정
곳: 성 베네딕도회 화순 수도원(<http://hsosb.or.kr>)

제90차	6월11일(금)~19일(토)	문의: 061)373-3001,
제91차	7월16일(금)~24일(토)	010-3540-9001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 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순례·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문의(접수): 02)773-1463, 064)756-6009

성지순례 피정	6월7일~10일, 6월13일~16일
자연순례 피정	5월28일~30일, 6월19일~21일, 7월23일~25일, 7월30일~8월2일, 8월5일~8일

가정선교회 6월 행사
문의: 010-2367-2297, 010-6281-8626, 02)777-1773 대표

성가경 영성 1일 피정	6월1일 9시30분~16시30분, 가톨릭회관 3층 한철호 신부, 이현주 회장 / 회비 없음, 식수 준비
첫토성모 신심미사	6월5일 14시~16시30분, 가톨릭회관 3층 한철호 신부, 이현주 회장

교육

성물조각·목세공·가구 수강생 모집(가톨릭목공예)
카페(cafe.naver.com/cmc04) 참조 / 문의: 010-5234-5044

청년 몸 신학 강의 / 문의: 010-7548-6664
때: 6월11일 매주(금) 5주 과정
곳: ICPE선교회(주최, 합정동) / 대면·비대면

144기 온라인(유튜브) 복음화학교 개강
때: 6월7일(월) 19시·6월9일(수) 14시·6월10일(목) 10시 / 수강문의: 02)753-8765, 02)2096-0410-0411 새천년복음화학교

미국 가톨릭 사립학교 여름국제캠프

대상: 초3~중2 / 문의: 02)2258-8983
때: 남학생 7월6일~8월3일, 여학생 7월10일~8월7일
홈페이지(oakinternational.co.kr) 참조
주최: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운영 미국 학교법인

미사

평양교구 신우회 월레미사 / 문의: 02)727-2056
때, 곳: 5월26일(수) 11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복자 윤지총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기념미사
때, 곳: 5월29일(토) 오전 11시,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 B3 콘솔레이션 홀 (중구 칠패로 5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내) / 집전: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순교자현양위원회 위원장 주교
문의: 02)3147-2402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인원제한, 네이버 사전 예약 필수

인미

카타리나 피정집 / 문의: 010-9715-1203
곳: 성도미니코 선교 수녀회(홍성) / 개인, 자체취사

도미니코 수녀원 영성센터 / 문의: 010-5604-1882
전문심리치료: 영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부부 및 가족 치료, 개인(우울·공황·대인기피·강박) 종합심리검사

제주도 관광
제주운전기사사도회에서 가족, 효도, 단체관광, 성지안내차량, 호텔, 펜션 예약 가능
문의: 064)758-6476, 010-4566-6476

서천군립노인요양병원 입원 안내
천주교 대전교구 / '치매안심병동' 운영
신경과, 가정의학과, 외과, 한의과, 피부과
주일·평일 미사 및 봉성체 / 문의: 041)950-1008

강서푸드뱅크·마켓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후원방법: 후원금, 식자재(쌀·라면·조미료 등) 및 생활용품 / 후원문의: 02)2635-1377, 02)2663-1377
후원금 계좌: 신한 100-026-821055 강서푸드뱅크마켓

진애인 가족치료연구소
곳: 명동 / 02)587-9207(<http://jinaein.com>) 토요일 가능

개인심리치료	불안, 우울, 분노, 공황장애, 강박적 행동
가족심리치료	가족(부부), 불안, 우울, 분노, 강박행동, 대인기피

성라파엘심리상담소
때: (월·일) 주말상담 / 070-4248-7573, 010-3008-4627

가족세우기	매주(토·일) 슬기로운 부모생활
전문 심리치료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부모 및 가족 개인(분노·우울·불안·부적응) 종합심리검사 / 비대면 화상상담 가능

전·진·상 영성심리상담소 / 문의: 02)726-0700

소통과 관계훈련	자기와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고 관계성을 향상시키는 훈련과정 / 7월16일(금) 10시~18일(일) 16시(숙박 프로그램)
서목상담	대상: 개인, 가족, 부부, 청소년 누구나(무료 10회)
전문 심리상담	가족치료, 개인, 부부, 종합심리검사 심리정서(불안·우울·분노·공황장애)

미혼모의 따뜻한 보금자리 인턴자모원
출산, 건강회복, 자립지원 무상 제공
입소문의: 032)772-0071

제106회 언택트 가톨릭독서콘서트
때, 곳: 5월27일(목) 오후 8시, 청담동성당 2층 대성전
작가: 한수산 작가 / 주제: 우리가 떠나온 아침과 저녁
문의: 02)3447-0750 한국가톨릭문화연구원

화곡성모공동생활가정 여성 장애인 입주자 모집
여성 지적장애인의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는 화곡성모공동생활가정에 생활할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문의: 02)2605-6521 이미경 사회재활교사

노인 공동생활가정
시설명: 바오로 성모의 집(유료)
대상: 일상생활 가능한 여성
곳: 고양시 덕양구 중고개길 98
운영기관: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문의: 010-9428-2247, 02)381-7510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중독 중점치료(알코올·마약·도박·인터넷 게임 등),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야간진료(화) 18시~20시30분
곳: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 홈페이지: www.karf.co.kr

대구대교구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주제곡 창작성가 공모(총 상금 2천만원)
분야: 교회 전통음악·가톨릭 생활성가
대상: 가톨릭 신자라면 누구나
접수: 9월30일(목)까지 / 문의: 053)250-3046~9
자세한 요강 및 문의사항은 대구대교구 홈페이지 및 문화홍보국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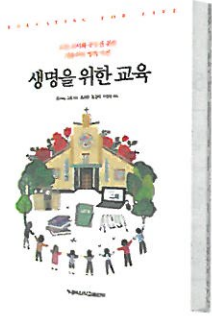
직원모집

잠원동성당 미화원 모집 / 문의: 02)595-2416, 7
대상: 세례받은 건강하고 근면 성실한 신자
서류: 응시원서(천주교 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에서 다운),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서류 심사 후 개별 통보 및 면접
5월26일(수) 오후 6시까지 사무실 방문 접수

교구청 가톨릭청년성서모임 직원 모집(육아휴직 대체)
대상: 세례받은 분 / 업무: 행정, 홈페이지, DB관리
1명(15개월 계약직, 프리미어프로 사용자 우대)
주5일 근무(토·일 근무) /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지원분야 기재),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발급) 각 1부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통보)
이메일(acoinsa@seoul.catholic.kr) 접수
5월31일(월) 도착분에 한함 / 이메일 문의

서울대교구 특수사목사제관(도립동 소재) 시설관리 직원 모집
대상: 세례받은 분, 도시가스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2급, 운전면허자격증 소지자 / 분야: 시설관리 0명(계약직)
추후 정규직 전환 가능 /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지원분야 기재),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발급) 각 1부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통보)
우편(우 04537,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74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무처) 또는 이메일(acoinsa@seoul.catholic.kr) 접수
5월31일(월) 도착분에 한함 / 이메일 문의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신간
생명을 위한 교육

토마스 H. 그룸 지음
가톨릭대학교출판부 | 624쪽 | 3만원
문의: 02)740-9718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가톨릭 교육에 대한 영적 비전을 제시한다. 철학이 부재한 채 무한 경쟁이 조장되며, 출세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버린 현재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서 이 책은 교육에 관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과 교육자의 역할에 대해 진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신간
하트 바오밥 나무

이종석 지음
들술날숨(분도출판사) | 96쪽 | 1만5천원
문의: 02)2266-36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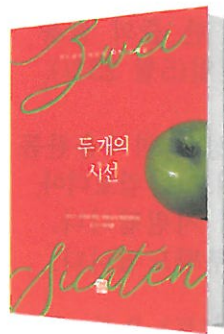
남들 보다 조금 느리지만 건강하고 높은 가치를 지닌 대한민국의 청년, 이종석 작가의 순수한 영혼의 색깔과 내면의 메시지를 붓 끝에 담아 장애를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 그리고 사랑의 감동을 전한다.



신간
하늘 아버지께 드리는 77가지 기도

하레스쿠 마사히데 지음
생활성서사 | 144쪽 | 1만원
문의: 02)945-59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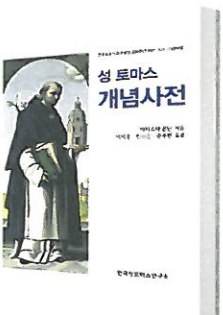
기도하고 싶은데, 또는 기도해야 하는데 적절한 기도의 말을 떠올리지 못해 헤매는 이들에게 예시를 보여 주고 이끌어 주는 기도 책이다. 마치 내 마음을 그대로 받아 적은 듯한 77가지 기도 가운데 나의 상황에 따라 바치고 싶은 기도를 찾아 기도할 수 있다.



신간
두 개의 시선

미르코 쿠진·우르술라 헤르테비히 지음
생활성서사 | 304쪽 | 1만5천원
문의: 02)945-5987

이 책은 '힙스터' 작가와 흡인력 있는 수도자가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28가지 주제를 각자의 이야기로 풀어낸 책이다. 일상에서 한 번쯤은 이야기를 나눠 봤을 법한 주제부터 타인과 나누기 어렵다고 생각했던 주제, 종교적인 주제들로 서로의 생각을 나눈다.



신간
성 토마스 개념사전

바티스타 몬딘 지음
한국성토마스연구소 | 884쪽 | 7만5천원
문의: 02)762-1194

이 책은 '성 토마스 아퀴나스 사상에 대한 백과사전적 사전'의 한국어판으로, 현대 이탈리아의 대표적 토마스주의자로 불리는 바티스타 몬딘 신부가 성 토마스의 방대한 저술들 속에서 다루어진 540여 가지 주제들에 대해 대가적인 필치로 그려낸, 성 토마스 아퀴나스 사상의 종합이 담겨 있다.



공연
**클래식안 앙상블
<파블로 피카소의 음악적 영감>**

입장료: 전석 2만원 / 문의: 02)444-4172
인터파크 티켓에서 클래식안 회원 할인 30% 선택 구매 후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어플리케이션의 본 안내문 지참시 주보 1부로 5명 할인

클래식과 미술의 만남 <파블로 피카소의 음악적 영감>은 입체주의를 열어낸 세계적인 화가 피카소의 작품을 미술 전문가의 친절한 해설로 감상하고, 그의 삶을 살펴봄에 선정한 클래식 곡을 실연으로 접하는 입체적인 공연이다. 6월11일(금) 19시30분, 서울 나루아트센터 대공연장에서 있다.

제2183호(성 바오로 사도 개종 축일)



연회동성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서울시 시대문구 연회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주임신부 : 류시창(베드로)

보좌신부 : 이철규(아우구스티노)

연례회장 : 차명국(비오로) 010-5512-4450

주일 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요일: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주 일: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디),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청년 20, 청년 30) 	유 아 세 례	홍수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평일 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요일: 06시 화요일: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06시, 10시 토요일: 06시 	혼 인 면 담	매 월 셋째 주 일 오후 3시
		성모신심미사	매 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 2021년도 신임 사목위원

직책	이름(세례명)
청년분과장	이상현(사도요한)
주일학교분과장	박안토니오(안토니오)

* 하나님의 은총 속에 본당 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5월은 현미헌금 봉헌의 달입니다.

매 끼니 마다 예수님과 이웃의 뜻으로 한 줌의 쌀을 모아 봉헌합니다. 모은 한 줌의 쌀을 헌금으로 환산하여 본당 봉헌일(5월 23일), 오늘 봉헌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모아진 우리들의 정성은 한마음한몸 운동본부를 통해 고통받는 동티모르, 캄보디아, 필리핀의 농부와 가족들에게 지원됩니다. 신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 성모 신심 미사 : 6월 5일(토) 오전 10시

◎ 임산부 및 태아를 위한 축복식·어린이 축복식
일시 : 6월 6일(주일) 오전 11시 미사

◎ 초등부주일학교 교리교사 모집

봉사시간 : 매주 토요일 12시
문의 : 010-9224-3330

◎ 주일학교 등록제

대상 :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반디2지구(장애아부)
등록비 : 10,000원
문의 : 초등부 교감 (010-9224-3330)
 중고등부 교감 (010-7148-1577)
 반디 교감 (010-5091-1509)

◎ 평일미사 반주자 모집

봉사시간 : 수요일, 금요일 06시 미사
문의 : 최윤희 아녜스 (010-4538-5665)

◎ 교무금 책정 현황 (2021. 5. 16.)

총세대	책정 세대	미책정 세대	2020년 책정율	2020년 납부율	2021년 책정율	2021년 납부율
2,199	768	1,431	45.3%	42.9%	34.9%	33.0%

교무금계좌번호	우리은행	137-04-110875
---------	------	---------------

※ 교무금 자동이체 신청해서 납부 바랍니다.

◎ 오늘은 현미헌금 2차헌금이 있습니다.

◎ 리모델링 기금 (5월 10일~16일)

익 명오만원 차영순육십만원
누 계 897,471,761원

◎ 감사헌금 (5월 10일~16일)

익 명오만원 김재균오만원
윤지원오만원 남기순오만원
정수진칠만원 이경희일십만원

◎ 우리들의 정성 (주님 승천 대축일)

교무금 10,220,000원
주일헌금 3,411,000원
홍보주일 2차 헌금 2,249,600원